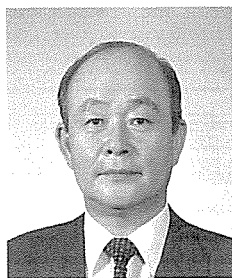


# 과학立國으로 경제 재도약을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난 날의 경제 운영도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즉 외채부족에 대한 자료가 2~3년 전에 숫자적으로 공개되었다면 오늘의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처도 전문연구업무만을 관장하는 부서라는 인상에서 벗어나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더욱 넓은 분야로 확대 개편되어야 과학입국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崔鍾浣  
(전 파기처장관)

## 경제難局, 과학 푸대접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근본원인은 세계화시대의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사고방식과 그에 따르는 행동양식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된 근본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허상과 허구에 사로잡힌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집권지도층이 주관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사로잡혀 실존하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된다. 산업활동에 있어서의 고비용문제만 하더라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비용은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며 노사(勞使)모두가 공멸한다는 논리를 무시한 처사였다. 국민의 분에 넘치는 과소비도 우리의 현실적인 소득수준을 무시한 허상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기업의 질적 향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양적 팽창에서 추구하려는 경영발상은 시대착오적인 허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력과 정치권과의 유착에 의한 불량한 편중대출은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허구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허구와 허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시도하려면 우리 잘못의 근본원인을 시정해야한다. 그러한 시정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적인 사고방식과 그에 따르는 행동양식이 절실

히 요구되는데, 결과적인 문제의 해결방안만 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물질에 관한 연구개발이나 제조에 관한 지식체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과학기술적 思考·행동을

과학기술을 정의하면 『자연이나 사회현상에 관하여 실존하는 사실을 토대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진실을 근거삼아 논리를 전개하는 지식체계』로 된다. 그리고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그의 표현은 수치화 또는 수량화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관하여 그의 원리가 공식화되고 수치화가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현상들의 인과(因果)나 상관관계가 복잡하여 공식에 의한 수치화가 어려운 것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수치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적인 방법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천체운동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객관적인 진실을 알게된다. 같은 온도에 대하여 사람에게 따라서 춥다거나 선선하다고 주관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를 섭씨 몇도라고 수치화하면 객관적이 되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인이 임신

하였을 때 그 태아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의학상으로 부모의 체질이나 임신당시의 상황에서 판별할 이론은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통계에 의하여 남자나 여자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진실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은 그의 정의에서 보듯이 인간의 사고방식의 형성이나 행동양식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은 감성에 의한 주관보다도 이성에 의한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전환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적 방법 적용해야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려면 과학기술적 방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학기술적 방법은 자연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선진 여러 나라 대학의 '정치학과'의 명칭을 'Political Science Dpt.'로 호칭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정치학의 객관화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에 있어 실존하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구와 허상에서 문제해결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에 있어 그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과학기술적 방법은 객관적으로 그의 정당성이 입증된 진실에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이 아닌 것에서 논리를 전개하면 그것은 사상누각의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표현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수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운영이 과학기술적이 되려면 우선 정부는 경제지표가 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예로써 외환부족에 대한 자료가 2~3년전에 숫자적으로 공개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사간의 교섭에 있어서도 국민소득의 수준과 생산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인 통계숫자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노사간의 각자의 감성에 의한 주관적 주장에 의하다 보니 충돌만 되풀이한 감이 농후하였다. 기업의 국제경쟁력문제를 살펴보면, 전 세계를 통하여 기업의 질적 향상없이 양적 확장만으로 국제경쟁력을 마련한 기업은 없다는 실질적인 사실을 무시한데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타당성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고도산업구조가 요구되는 오늘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한 경영군이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경영을 총 지휘하는 사람은 슈퍼맨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에는 없는

그와 같은 슈퍼맨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 전국민의 과학화운동 시급

오늘의 경제위기의 원인의 하나로서 정경유착을 들고 있다. 정경유착은 따지고 보면 정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를 위한 비용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권자가 정경유착이 나라를 해치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해친다는 냉철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을 가진다면 정경유착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학교교육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학기술적인 사고방식은 정부요인, 그리고 산업계 인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소비자의 과학기술적인 사고방식의 대응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민의 과학기술화를 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이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를 한다면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우리 모두가 그의 전문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처도 전문연구업무만을 관장하는 부서라는 인상에서 벗어나서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더욱 넓은 분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과학입국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①7